

가대사랑카 소식지

한동인

한동의 팀 모임 문화 배우고 싶어 왔어요!
교환학생들, 한국에서 한동인과 함께 추석나기
꿈을 꿀 때면, 아직도 가슴이 뻘뻘

Why Not Change the World?

한동과 후배들을 위해 드리는 '첫 월급 기부'
한동의 아름다운 사람들!

한동 소식

'한동으로의 길' 에 서서...
고딩, 하나님을 체험하라! 한동을 느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15:5]



지난 2년간의 갈대상자를 뒤로하며...



안녕하세요. 지난 7월까지 갈대상자 소식지 기자로 활동했던 07학번 법학부 강예슬입니다. 1학년 때 갈대상자 기자 활동을 시작했고,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아 아쉬움도 크지만, 이를 뒤로 하고 이제는 졸업을 하려 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갈대상자 소식지 팀과 담당 선생님의 배려로 짧은 후기를 남길 수 있게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제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갈대상자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대상자 후원자님들께 드리는 한동대학교의 작은 선물, 제게는 이 선물이 갈대상자 소식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의 예쁜 모습만 담아서 드리고 싶

었습니다. 한동 학생들이 멋지게 성장해가는 모습, 교수님들의 한동을 향한 마음, 선배들이 물려준 한동만의 문화, 그리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동대학교까지. 한동의 사소한 사건 하나까지도 갈대상자에 실을 수 있을 것 같아 자세히 들여다보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마치 부모님께 칭찬 받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처럼 잘한 것만 마음껏 자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 마음에도 한동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겼습니다. 갈대상자를 통해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닌 다른 친구들이 갈대상자 글을 쓴다는 생각에 조금은 섭섭하기도 합니다. 갈대상자 소식지 기자라고 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질 만큼 제가 기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기자로 활동하면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더 아름다운 한동을 후원자님들께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한동을 향한 사랑과 자부심이 짙게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신에 대해 말해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활짝 피었습니다.' (I asked the tree, Speak to me about God, and it blossomed.) 이제 사회로 나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사람으로 성장하려 합니다. 후원자님들의 삶에도, 한동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길 기도하겠습니다.



CONTENTS

한동인

- 미래의 케나 정치, 저에게 맡겨주세요 06
- 한동의 팀 모임 문화 배우고 싶어 왔어요! 08
- 한동 동아리 이야기 10
- 교환학생들, 한국에서 한동인과 함께 추석나기 12
- 故 박소연 학우 부모님의 장학금 기부 14
- 꿈을 꿀 때면, 아직도 가슴이 뻘뻘하다 16
- 한동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바리스타! 18

Why Not Change the World?

- 좋은 콘텐츠로 세상에 쓰임 받는 기업 꿈꿔요 22
- 선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24
- 까만 손이 가져다 준 따뜻한 행복 26
- 그해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28
- 한동과 후배들을 위해 드리는 '첫 월급 기부' 30
- 한동의 아름다운 사람들! 32
- 과학캠프 통해 '재능기부봉사' 해요! 34

한동 소식

- '한동으로의 길'에 서서... 38
- 고딩, 하나님을 체험하라! 한동을 느껴라! 40
- 한동의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꿈나무를 양성하는 한동영어캠프 42
- 싱싱한 무, 맛있게 드셨나요? 44

함께 엮는 갈대상자

- 고양아 고양아 뭐하니? 46
- 특별한 가을 소풍 48

한동인 ...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한동인의 삶을 엿보는 공간.
이번에는 어떤 한동인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미래의 케냐 정치, 저에게 맡겨주세요

케냐 사나이 11학번 마탐파쉬 카마쇼, “국제경영학과 국제법학 전공할 것”

지난 11월 15일, 특별한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월드비전의 후원으로 케냐에서 이곳으로 온 한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공부하게 된 곳은 다름아닌 한동대였습니다. 11년 가을에 한동대 학생이 된 케냐 청년, 마탐파쉬 카마쇼를 만나 보았습니다. 마탐파쉬 카마쇼는 케냐에서 태어나 자라왔습니다. 가난한 환경이지만 열심히 공부해 주위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드비전에서 학생 한 명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에 자신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월드비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비행기 티켓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모든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가족 같아요.”

월드비전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게 된 카마쇼를 위해 한동대도 장학금과 기숙사비 일체를 지원했습니다. 제 3세계의 학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카마쇼에게 한동에 대한 이미지는 한마디로 ‘커뮤니티’(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학교에 왔을 때 마치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동체 위주가 많아서 좋았어요. 또 케냐의 학교들에 비해 환경이 좋은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실제로 생활관에서 한 방을 쓰고 있는 친구가 케냐에서 태어난 친구이고, 또 많은 한국인 친구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에 카마쇼는 연신 ‘너무 좋은 친구들’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약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모든 것에 잘 적응하고 즐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5일간 서울에서 지냈어요. 그 때는 한국 음식이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됐고, 또 즐기고 있어요. 찜닭, 탕수육 등 대부분의 음식이 맛



있어요.” 그러나 아직 못 먹는 음식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아직 김치는 못 먹어요. 매워서 적응하기가 힘들네요.”

카마쇼는 앞으로 한동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GM)과 국제법학(UIL)을 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동대학교의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열의도 대단하고, 교수님들 또한 자상하게 가르쳐 주신다며 학업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카마쇼는 졸업을 하고는 케냐의 정치를 뒤집겠다는 굳은 의지도 보였습니다. “현재 있는 케냐의 시스템은 문제가 많아요. 저는 이곳에서 배운 내용들을 발판 삼아 케냐의 정치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케냐를 만들어 모두가 편안한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한동의 슬로건은, 어느새 케냐 청년 카마쇼의 마음에도 녹아 들었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환하게 웃는 카마쇼의 얼굴에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변화될 케냐의 미래가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한동의 팀 모임 문화 배우고 싶어 왔어요!

한동에서 한 학기를 보낸 숙명여대 휴학생 한희빈씨

2011년 2학기 조준모 교수님 팀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잠시 휴학하고 한동에서 생활하게 된 한희빈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희빈씨는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인 언니로부터 한동에 대해 예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한동에 오기로 결심하게 된 첫째 이유는 팀모임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동대에 다니는 언니가 팀모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또 언니가 학교에 다닐수록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대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평생 서울에서 살았던 한희빈씨에게 포항 끝자락에 위치한 한동대에 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녀가 한동대학교에서 받은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우선 기독교적인 행사가 많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학업과 신앙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좋게 느껴졌어요. 팀모임 등을 통해 교수님과 교류할 기회도 많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한희빈씨가 처음 이곳에서 살 때에는 주변에 놀 곳이 없어 무척 심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동의 팀에 들어오고 나서는 여려 활동을 함께 하느라 요즘은 심심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엔 언니가 아무 지인도 없는 저를 많이 챙겨 주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언니보다 밥 약속이 더 많아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를 한동대생인 것처럼 착각하구요.”

한동대생들도 착각할 만큼 한희빈씨는 한동대에 서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팀모임을 비롯해 각종 수업을 청강하였고, 대학교회의 '시은 순모임', 성경공부모임인 '하심'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순결 서약식'과 '사랑의 연탄 나르기' 등의 행사에도 참석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한동대생보다 더 한동대생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희빈씨는 한동만의 특별한 문화를 즐기었습니다.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야식을 시켜먹는 게 재미있어 보였어요. 중간고사 등 시험기간 때마다 자기 팀, 동아리에게 격려 문구를 담은 간식



들도 신기했어요.”

한동대학교에서의 가장 특별한 기억을 물어보자, 한희빈씨는 팀 특송을 꼽았습니다. “팀원들이 후드티를 맞춰 입고 채플에서 팀 특송을 부르던 기억이 나네요. 교수님께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더욱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한 학기 동안 한동대학교에서 생활한 한희빈씨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우선 신앙적인 성숙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저는 삶을 더욱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았어요. 또한 제가 힘들 때에 이를 먼저 알고 다가와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대학교에서 와서 처음엔 외면 받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모두가 친절하고 마치 우리학교 사람인 것처럼 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동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한동인들과의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한희빈씨는 한 학기 휴학생생활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한동 동아리 이야기

우리의 토론, 우리의 예배, 베네딕트

한동에는 많은 동아리와 학회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낭만과 꿈은 동아리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생들의 열정과 끼의 집합소, 한동의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장려상, ‘제7회, 8회 부경대학교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연속 대상, ‘제7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대상 수상 등 최근 2년 동안 무려 8번의 크고 작은 토론대회에서 상을 거머쥔 한동대학교 토론학회 베네딕트. 베네딕트는 ‘좋은 말’, ‘선한 말’ ‘토론을 끝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토론이라 하면 서로 싸우고 비판하는 언쟁이라고 생각하지만 베네딕트는 좋은 말과 선한 말로 이러한 논쟁을 잘 끝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딕트 학회는 매주 한 번 모든 학회원들이 모여 약 4시간 동안 자유토론, 3분 스피치 등을 하며 서로의 생각과 논리를 견주고 부족한 논점을 보완, 더욱 발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주일에 4시간이라는 시간이 여유 있게 보이지만 이는 사실 학회 활동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4시간을 위해 학회원들은 1주일 내내 토론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연습합니다. 베네딕트 회장인 남보라 학우는 “저에게 유일한 공동체이며 학회 활동을 학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곳에서 많은 걸 배웠고 저의 신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며 학회에 대한 애착을 이야기 합니다. 학회원인 전민규 학우는 “졸업하고도 계속 만날 사람들과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남보라 회장은 특히 학회원간의 우정과 신뢰가 깊음을 자랑합니다.

지난 제8회 부경대학교 총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예선에 모든 학회원이 참가했지만 남보라, 전민규 학우의 ‘돈을새김’만이 예선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회원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1주일 동안 새벽까지 본선 대회 준비를 도와주며 본선 당일에는 새벽 4시에 택시를 타고 대회장에 가는 강행군을 다같이 하였습니다. 남보라 학우는 “학회원들이 대회 중간중간 논리적 비약과 스피치를 교정해주고 피드백을 해줬어요. 특히 준결승



사진제공: 한동신문사

결승에서 학회원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어요.”라며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의 토론학회 베네딕트의 예배는 토론이었습니다. 전민규 학우는 “토론은 이성적인 신앙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성의 활용이 곧 하나님께 들어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전민규 학우는 덧붙여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를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하는 경쟁적인 성질이 강하며 토론을 하다 보면 상대방 말꼬리 잡기, 불리하면 논점 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딕트는 성경에서 나오듯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토론을 지향합니다.”라며 베네딕트는 하나님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힘,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베네딕트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들, 한국에서 한동인과 함께 추석나기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문화 탐방기

한국 최대의 명절, 추석이 되면 시끌벅적하던 한동의 캠퍼스는 어느 순간 정적이 휩싸입니다. 아니, 오히려 을씨년스러울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친지들을 만나 단란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학생들, 가족과 친지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추석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이번 추석을 즐겁게 보낸 외국인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니엘라(Danielle Deboer)에게 있어 추석은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외국인 학생들과 부산 여행을 즐겼습니다. 친구들은 매우 서툰 한국어실력과 손짓발짓을 동원해가면서 여행을 다녔다고 하네요. 사진조사를 통해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여행을 다녔습니다. 친절한국 사람들 덕분에 더 많은 길도 알았고, 또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볼 수 있어 너무나도 좋았다는군요. 부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이기대 공원이라며 “숲과 바다가 한꺼번에 펼쳐진 경치였어요! 정말 모두에



게 추천하고 싶어요.”라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잠은 어디서 잤냐고 하는 물음에 그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찜질방에서 잤어요. 한국의 찜질방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여행하는 3일내내 찜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라니!” 그러면서 다니엘라는 찜질방 에피소드 하나를 풀어놓습니다. “처음 갔을 때 저희는 잠을 자야 한다고 침대가 어디 있냐고 물었죠. 찜질방에 계시던 분들은 황당해 하더군요. 그러곤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닥이 모두 침대예요!”(웃음)

한편 홀리(holly Mooren)에게는 이번 추석이 특별했습니다. 바로 한동대에서 만난 한국 친구의 집에

초대받은 것이죠. 덕분에 추석 기간의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추석기간 동안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도 알게 됐어요. 가족들의 환대에 매우 고마운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친구 집에서 직접 추석 풍습들을 보았어요. 같은 핏줄의 사람들이 모두 모이고, 함께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어 먹었죠. 특히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배부르게 먹은 것이 기억에 남아요.” 음식 이야기가 나오니 모두들 들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송편부터 과전과 각종 튀김들, 그리고 햇과일들이 맛있었다면서 서로 자신이 먹은 음식 사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샘(Sam walker)과 네이트(Nate Lowe)는 한국인 친구와 함께 서울에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이 친구도 부모님이 타국에 있어 함께 추석기간 동안 지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새벽 3시까지 이야기도 하

고, 또 한국인 친구가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줘서 먹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샘은 “송편이 맛있어서 어제 밤 냉장고에 넣어뒀던 떡을 다시 꺼내서 먹었는데, 차갑고 딱딱해서 입이 얼얼했어요.”라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봅니다. 네이트는 서울 시내를 구경하던 중 특별한 경험을 했으며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배를 드리러 여의도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았는데, 택시기사님이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내려주셨어요. 덕분에 하루 종일 걸어서 다시 교회를 찾아갔죠.”(웃음)

이렇게 한동에 온 교환학생들에게 이번 추석은 특별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의 음식을 맛보고, 즐겁게 여행을 하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한 기억, 특히 한동의 한국 학생들과 즐겁게 지낸 기억은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입니다.



故 박소연 학우 부모님의 장학금 기부

한동인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겨울 우리학교에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비전트립으로 키브츠에서 활동 중이던 08학번 상담사회복지학부 박소연 학우가 2월 10일 불의의 사고로 소천한 것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있던 우리학교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새 학기 첫 주에 열렸던 박소연 학우의 천국환송예배에서는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참여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박소연 학우는 1학년 때에도 이스라엘에 단기선교를 다녀올 만큼 신앙생활과 선교에 열심이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한동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을 주축으로 한 사회적 기업 '향기내'는 사람들에서 학생직원으로 활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박소연 학우였기에 주변 사람들의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이후 박소연 학우의 부모님으로부터 한동대학교에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박소연 학우의 명의로 등록되었던 여행자 보험금을 모두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혀 주셨습니다.

여행자 보험금이 나온 이후 박소연 학우의 부모님께서 “이 돈을 100원도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험금을 박소연 학우와 같이 공부하는 한동인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기부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박소연 학우의 어머니께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조심스럽게 여쭙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박소연 학우의 사고 소식을 들은 뒤 어머니께서 이스라엘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는 무겁고 힘든 마음만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믿었기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동대학교 학생들도 “앞으로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동대학교 출신 순교자들을 기리는 피지 광장에는 박소연 학우의 묘비가 있습니다.故 박소연 학우의 부모님께서 박소연 학우가 가지고 있던 선교의 꿈을 후배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박소연 장학금)을 통해 한동인들이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 모두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면을 빌어故 박소연 학우의 부모님께 감사 드립니다.

“꿈을 꿀 때면, 아직도 가슴이 뚝니다”

교과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도병욱 동문을 만나다

그와의 만남은 아직도 가슴이 뛰고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한동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구체적인 꿈을 세웠고, 이제는 그 꿈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도병욱 동문의 모습은 약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홍보담당관의 모습으로,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조근조근한 톤의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Q.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02학번 졸업생 도병욱입니다. 경영경제 전공을 했었고, 한동신문사 국장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시행하던 미주중앙일보 인턴 프로그램 덕에 기자생활도 해보고, 기획홍보처와 함께 한동대학교 홍보 아이콘 어플리케이션 'iHandong'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애플 스토어에서 내렸으니 찾으시면 안됩니다). 아, 채플에서 '윈더걸스 낚시 홍보 동영상'을 틀었던 2007년도 축제기획팀도 했었네요. 지금은 교육과학기술



술부(교과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교과부 이주호 장관의 정책블로그 '궁정의 변화'와 미디어 채널 '궁정의 TV'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관과 교육/과학기술 현장을 함께 다니며, 국민들이 보다 교과부의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지금은 교과부 정책홍보 소식지인 '궁정의 e뉴스레터'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Q. 어떤 계기로 지금의 일에 몸 담게 되셨나요?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에서 경험을 쌓았던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일간 신문 기자, 학교 신문 편집장, 라디오 방송 리포터, 인터넷 신문 사진기자 등 여러 매체와 분야를 거치다 보니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제가 했던 경험들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지인을 통해 교과부에서 제가 원하던 일과 꼭 맞는 분야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교육 쪽에 있는 특성상 총장님을 외부에서 만나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총장님이 학교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가요?

김영길 총장님이 올해부터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되시면서 대교협 행사가 있을 때마다 뵙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장관의 대교협 행사 참석 횟수도 늘고 있는 것 같구요. 총장님은 대교협 행사 때마다 장관 바로 옆자리에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 주였던가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 포럼 2011' 행사에 출장을 갔었는데, 총장님이 한 세션의 좌장으로 참석하신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출장 때 뵙게 되면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많은 분들 사이에 둘러싸여 계셔서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인사 드리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 애플 스토어: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판매 사이트.

Q. 한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이 있었나요?

제가 이 곳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이름이 바로 '궁정의 변화'입니다. 한동의 슬로건과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꿈을 위해 작게는 제가 속한 공무원 사회에 젊은 감각과 창의성을 불어넣는 것부터, 크게는 우리 교육현장을 바꿔나기는데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험도 능력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큰 목표가 있기에 행복합니다.

어쩌면 학교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많은 경험도, 졸업장도, 간판도 아닌, '늘 꿈을 생각하게 해 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 저를 따라다닐 '한동대 졸업생'이라는 이름처럼, 그 꿈을 향한 여정도 평생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도병욱 동문은 쑥스럽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 '졸업생을 대표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에 그는 모든 졸업생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동의 슬로건 'Why not Change the World?'에 끌려서 학교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슬로건을 처음 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전 아직도 들으면 가슴이 뚝니다. 세계 꿈을 꾸게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 모든 졸업생들의 꿈이 아닐까요?"

한동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바리스타!

‘히즈빈스 삼촌’ 이윤정 선생님이 말하는 한동대, 그리고 한동인

아침수업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분주히 강의실을 오가는 오전 10시. 오석관 3층의 카페 히즈빈스에는 커피 한잔으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려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커피원두를 그라인더에 갈아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요란한 소리 속에서 유독 밝은 목소리가 학생들을 맞습니다.

“네, 손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료를 드릴까요?” 히즈빈스의 ‘멋쟁이 삼촌 바리스타’, 이윤정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특유의 푸근한 미소로 어느 손님이든 즐겁고 편하게 대해 주십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영어로 음료를 설명하면 외국인들은 선생님께 엄지손가락을 세워가며 선생님께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덕담을 들려주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이윤정 선생님! 선생님이 바라본 한동대학교에 대하여 들어보았습니다.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일단 언어가 달라요, 항상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죠.”

선생님께서서는 대학교 2학년 때 조울증이 발병하여 이후 입원과 통원치료를 병행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병 못지 않게 힘들었던 점은 정신장애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면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할 거라는 편견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던 중 히즈빈스를 알게 되었고 면접을 통해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생님께서는 약 3개월 간의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후 카페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신장애를 가진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첫 인상으로부터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참 달랐어요. 저를 알아보고는 밝게 인사해주고 도움을 주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커피와 음료의 주문을 받으며 학생들과 잠깐씩 마주치는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께서는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려는 한동인들의 마음씨를 보셨다고 합니다.

“한번은 주문을 받고 계산을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항의할 법도 했지만 웃으면서 ‘대신 더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걸 듣고는 ‘주변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구나’라고 생각했죠.”

선생님께서 한동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선생님께서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없애주는 데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공부해서 남 주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신장애인들과 더 많은 교류를 통해서도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쉬지 않는 주문에 지칠 법도 하지만, 선생님은 짜증내지 않고 늘 즐거워하십니다. 선생님의 푸근한 미소와 마음씨 덕에 히즈빈스 커피는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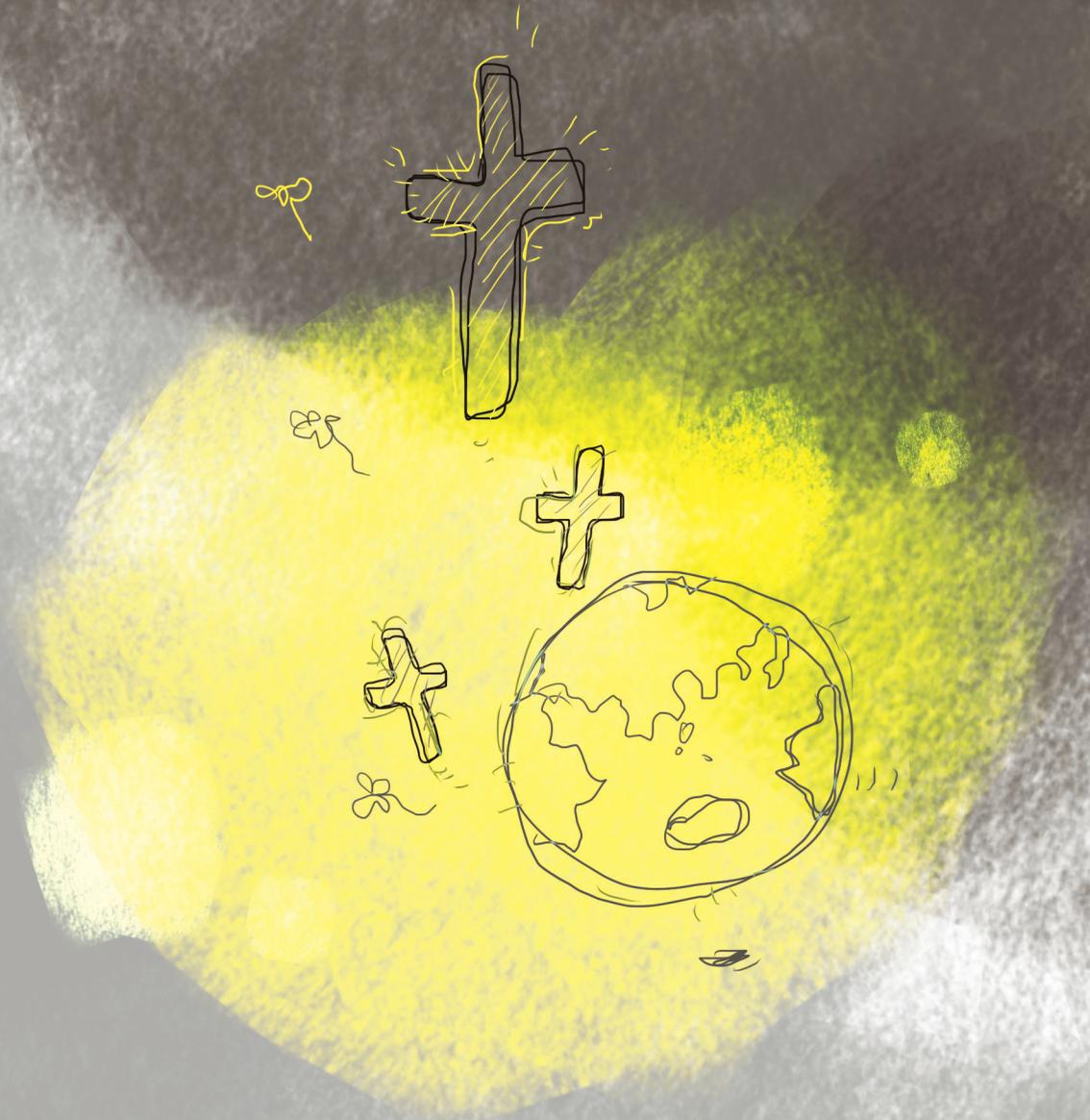


▪ 그라인더: 볶은 커피를 분쇄하는 기계.

Why not
Change

the
World?

“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한동에 모였습니다. 한동의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이곳에서 풀어봅니다. ”



좋은 콘텐츠로 세상에 쓰임 받는 기업 꿈꿔요

전자미디어 플랫폼 개발업체 쓰임이퍼브를 들여다보다

요즘은 세상이 참 편리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하나면, 웹서핑, 게임, 독서, 영화감상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의 발전 그 이면에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한 콘텐츠를 전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쓰임이퍼브가 바로 이러한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쓰임이퍼브의 이준 대표는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선교에 깊은 뜻을 가지고 준비하던 그는 한 선교포럼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일이라면, 선교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는 산업정보디자인을 전공해 관련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던 중, 전자출판업계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기존에 인기 있는 전자 도서들은 원색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



한 환경인 것이죠. 저는 콘텐츠 시장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쓰임이퍼브는 좋은 콘텐츠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가진 좋은 콘텐츠의 2가지 기준은, '사회적으로 유익한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였습니다. 쓰임이퍼브는 갯피플과 새벽나라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혜 작가와 인연이 닿아 그녀의 묵상집을 전자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천국의 숲1, 2라는 이 묵상집은 좋은 반응을 얻어, 출시한지 2일만에 한국 애플 스토어 도서부문 4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쓰임이퍼브가 알려지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의 전자책 제작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전자출판분야에서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종합 미디어 콘텐츠 제작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장 자체가 크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준 대표는 "좋은 콘텐츠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직접 콘텐츠를 돈을 주고 구매하는 사람은 적은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이용해 강력한 선교의 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는 쓰임이퍼브의 모든 식구들. 한동에서부터 배워온 이 정

신은 이제 자신들의 창업한 회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에서는 천국의 숲 1, 2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입력해 보세요.



쓰임이퍼브
SIM EPERB

- 스마트폰: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핸드폰.
- 태블릿PC: 손가락이나 터치 펜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소형의 휴대형 컴퓨터.
- 애플 스토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판매 사이트.

선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지금까지 총 454팀이 전세계에서 선교활동 벌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 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누가 4:43)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태 16:15)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명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과 말씀으로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수님의 삶을 좇아 가려는 우리의 마음은 이내 세상의 흐름에 간혀 헤어 나오지 못한 채 나의 부족한 신앙심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학생선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학생들의 단기선교는 복음의 전파보단 해외 여행이나 학생들의 자기만족을 채울 뿐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기에 비록 단기선교라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단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찾고 이를 발판 삼아 자신을 단련하고 후에 하나님을 위해 쓰이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을 활용한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선교모형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어문 마민호 교수님은 한동신문을 통해 “선교를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 시작하라, 한 발이라도 내디디라고 말하고 싶다. 작은 훈련이라도 시작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단기 선교의 시작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437명의 학우들이 여름방학(313명), 겨울방학(124명) 때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 후로 현재까지 매년 300~400명 이상의 학우들이 지속적으로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엔 가장 많은 숫자의 학우(총 807명)가 선교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한동의 선교는 제 교목실에서 201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9



년도부터 2011년 겨울까지 매년 400~700여 명의 학우들이 방학을 이용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현재까지 아시아 310팀, 중앙 아시아 및 중동 105팀, 아프리카 12팀, 남태평양 15팀 유럽 및 북·중·남미 12팀으로 총 454팀이 세계 각지로 파송되었습니다. 올해에도 455명의 학우가 선교를 위해 세계 각지로 나갔습니다.

주로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단기선교는 적게는 1~10명 내외에서 많게는 40여명이 한 팀을 이루어 1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각자의 선교지에서 활동을 펼칩니다. 이들은 선교지에서 지역에 대한 중보 기도과 봉사활동을 비롯 찬양, 태권도 등 전공 분야 관련 사역, 지역 대학생들과의 세미나 등을 통한 학술 교류, 난민 구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태국으로 선교를 간 LAME

동아리의 임택호 학우는 “아웃리치를 가기 5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가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만나 기도했고, 1개월 전부터는 매일 만나 기도로 준비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선교를 다녀온 한 학우는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 없이 한 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며 “삶 속에서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가 24:14)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까만 손이 가져다 준 따뜻한 행복

송도동 일대 '사랑의 연탄' 6000장 기부

'겨울' 하면 연인들과 크리스마스, 하얀 눈과 눈사람, 스키장에서의 따끈한 코코아 한 잔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어느 좁고 가파른 골목길 사이로 들어가면 겨울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골목길 옆 허름한 어느 집,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깊은 한숨과 함께 뿔어져 나오는 입김이 집안의 싸늘함을 이야기해줍니다. 때가 낀 낡은 텔레비전이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지만 이 친구는 말만 많지 정작 할머니의 이야기는 들어줄 줄 모릅니다. 녹록한 전기장판 위가 유일한 생활 공간, 할머니는 이불을 돌돌 말고 그렇게 하루를 또 버팁니다. 기온 차이로 물방울이 송송 맺힌 얇은 철문은 세상과 할머니를 단절시켜 놓습니다.

이러한 독거노인들과 차상위계층을 위해 한동대 학생들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월 5일, 포항시 남구 송도동 일대 주민에게 연탄 6000장을 기부하기 위해 한동대 학생 80명과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포항 지부' 임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인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한동대 김민식 학우(생명과학 06)가 기획하여 작년에는 한동대 학생 20명이 참여하여 약 1000장의 연탄을 날랐으며 올해에는 지원한 학생 수가 4배나 더 늘어났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찾아온 잠깐의 가을방학, 늦게까지 잠도 실컷 자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지만, 이들은 이 달콤한 휴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포항의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연탄 배달부로 나선 것입니다.

학생들은 송도동에 도착하여 골목 어귀에서부터 토시와 앞치마, 면장갑과 비닐장갑까지 끼고 각오를 다져봅니다. 모두가 길게 지그재그로 서서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옮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연탄을 처음 옮겨 보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연탄의 무게에 짓눌려 이마에선 땀이 나고 얼굴은 쨍그려 집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마의 땀을 쓱 훔



쳐내자 이내 얼굴에는 눈썹 위로 또 다른 눈썹이 생겨 버렸습니다. 연탄을 받은 송호동 주민인 박세숙 할머니(72)는 "너무 고마워서 이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라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한 한동대 김영희(경영경제 07) 학우는 "주민 분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 저마저 행복해져요. 연탄재 때문에 옷은 엉망이 되었지만 기분만은 상쾌해요."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활동을 기획한 김민식 디렉터는 "작년엔 혼자서 기획하고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내년에 쓸 홍보) 영상도 직접 찍고 교내 모금 활동을 통해서 연탄 나눔 운동 본부에 전달할

성금도 마련했습니다."라며 "저는 올해 졸업하지만 이 활동이 계속 이어 졌으면 좋겠고, 한동대 학우들도 이 맘 때쯤 연탄 나눔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실어다준 연탄 덕분에 송도동 주민들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든 것은 어쩌면 6000장의 연탄이 아니라 학생들이 내민 새카만 손이었는데도 모릅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그해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3월 11일, 진도9.0의 대지진이 일본 열도를 덮었습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실종자는 약 3만 여명에 이르며 2만 여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죽고, 삶의 터전이 쓸려갔으며, 방사능 오염의 위협에 일본 국민은 여전히 힘든 때를 겪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직후 우리 모두가 같이 가슴 아파하며 많은 이들이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잊혀졌습니다.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일본을 상기시켜줄 영화 '그해 여름'을 소개합니다.

작년 봄, 한동대 학생인 심찬양, 조병훈, 박진 세 학우는 언론정보문화학부 수업인 다큐멘터리 제작에서 일본의 지진 영화를 제작하기로 합니다. 학기를 마무리하고 7월에 일본에 직접 가서 필름 속에 일본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학우들은 일본 전국 목사협회와 한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50여 일이 지난 뒤였지만 쓰나미가 훑고 간 해안지역은 그야말로 초토화 되어 있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380km 지역이 폐허로 변했으며 마을의 흔적조차 찾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 속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든 상황에서 학우들을 정말로 힘들게 한 것은 일본의 슬픔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병훈 학우는 "영화를 찍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엄마를 잃은 아이에게 그때의 악몽과 슬픔을 상기시키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라며 심정을 털어냈습니다.

학우들이 찾아간 후쿠시마는 방사능 오염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고요한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일상과 똑같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평상시와 같이 일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도시보다 더 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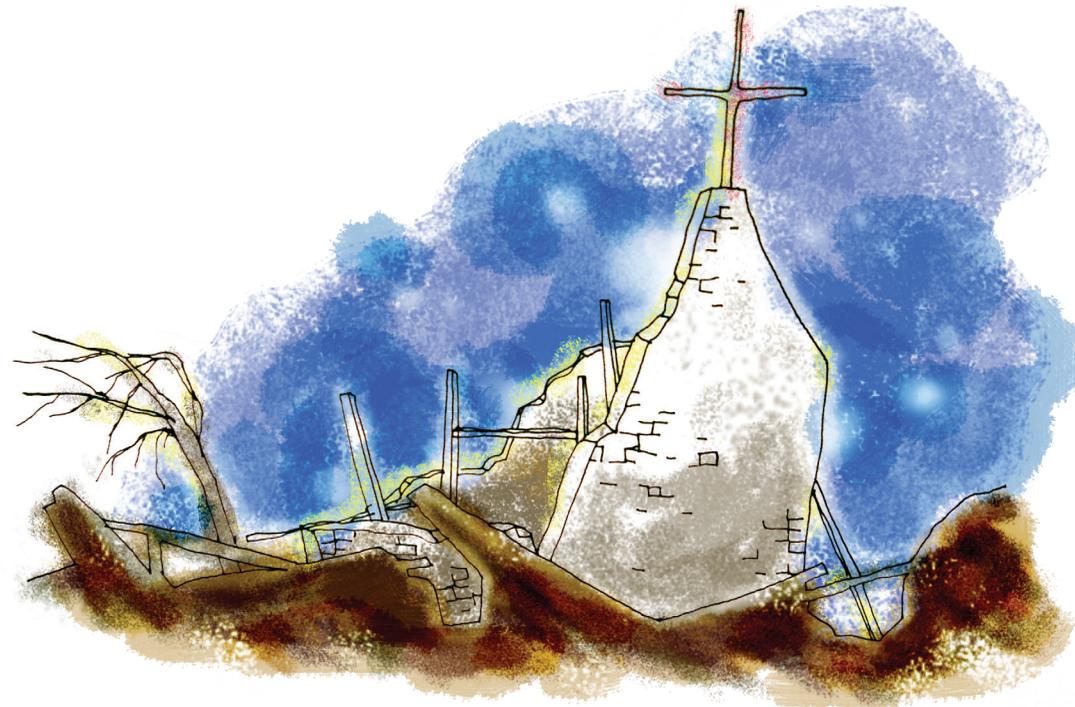
필름은 재난 속에서 봉사활동 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분들의 헌신과 아픔을 보여줍니다. 그리

고 이들의 일본에 대한 사랑과 비전이, 이 폐허 속에서 어떠한 결실이 맺어질 것인지 이야기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쓰나미가 지나간 어느 도시의 가장 낮은 지역에 있었던 교회는 교회 터와 우뚝 솟은 십자가만이 이곳이 예전에 교회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성하게 엮은 나무의자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있었고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심찬양 학우(언론정보 06)는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 잠시나마 일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일까요? 살고 있던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혹은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 그것도 아니면 가족의 죽음을 알았을 때 일까요? 어쩌면 가족을, 삶의 터전을, 자신의 건강을 잃은 그 사실보다, 힘들고 지쳐 뒤를 돌아봤지만 자신의 아픔을 함께 나눌 이가 없음을 느꼈을 때가 가장 힘든 때가 아닐까요.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한동과 후배들을 위해 드리는 '첫 월급 기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져

한동대학교에는 참 아름다운 문화가 많습니다. 새내기로 처음 들어올 때 선배들이 새내기 섬김이로서 새내기들을 맞이해주는 따뜻한 문화부터 시작해 졸업한 이후에도 학교와 후배에 대한 사랑은 계속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한동의 문화는 한동대학교가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로부터 매년 계속되어 온 '첫 월급 기부 문화'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 받게 되는 첫 월급은 그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 받았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일하여 받은 첫 소산물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의 졸업생들은 귀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자신이 후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한편 어떤 졸업생들은 모교인 한동대학교에 기부를 하곤 합니다. 한동이 다른 대학교와 같이 지성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닌, 영성과 신앙을 길러준 공동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첫 월급을 기부하는 손길은 매년 이어져 지금까지 약 50여명의 졸업생들이 자신의 첫 월급을 한동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학교에 첫 월급을 기부하는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신새미 동문(경영경제 04)의 경우에는 선배들이 첫 월급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월급 기부를 생각해 왔다고 합니다. 신새미 동문은 지난 37호 갈대상자 소식을 통해 “졸업 이후 어떤 회사를 가게 되든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며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곳에 쓰이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동대학교에 기부하는 방법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첫 월급을 기부했던 이정은 동문(상담사회 03)은 39호 갈대상자 소식을 통해 자신의 월급 기부가 후배들을 위해 잘 쓰이기를 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학부시절 때 전공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재정문제로 컴퓨터실에 설치되지 못했던 경험이 기억났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후배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첫 월급을 더 기쁘게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아름다운 첫 월급 기부는 이어졌습니다. 한 졸업생이 첫 월급을 학교에 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졸업생은 이 소식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저희가 인터뷰를 청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선배들이 한동에는 참 많습니다.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한동의 아름다운 사람들!

봉사활동은 언제? 지금 바로!!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았던 지난 9월, 한동대학교에는 뜻 깊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1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우수자 10명에 대한 시상식이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재학 중에 사회봉사를 2학기 이상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자발적으로 더 오랜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학업으로 인해 바쁜 와중에도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놓는 아름다운 한동인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정화 학우(생명과학 08)는 지난 학기 네 번째 사회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사회봉사를 하게 된 곳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예사랑 보호센터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사회봉사 의무하기를 마쳤음에도 이정화 학우가 새로운 사회봉사를, 그것도 봉사활동을 하기 쉽지 않은 장애인 센터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품고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특히 장애인 분들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봉사하겠다는 마음은 컸지만 처음 현장에 갔을 때의 마음 속 어려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기도 했고 그곳에서 잠을 잘 때에는 긴장되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장애인 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선 그 분들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짐작할 만큼 장애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회봉사 우수자인 김가현 학우(생명과학 07)는 해맞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초등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회봉사를 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편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 또래 친구들에 비해 공부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가현 학우는 처음에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영어 동화책을 골라 조금씩 가



르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같이 밥도 먹고 놀이주면서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영어공부에 대한 열의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그 중 ‘명정’이라는 아이는 처음에는 실력이 부족했지만 동기부여를 해주자 열심히 공부해 결국 더 잘하는 반으로 월반하게 되었습니다. 김가현 학우는 이처럼 아이들이 사랑과 관심을 받은 만큼 발전하는 것을 지켜볼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에 관해 다른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이정화 학우는 “봉사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면 시간이 생겨

요.”라며 웃었습니다. 김가현 학우는 “봉사활동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해요.”라고 말합니다. 흔히 많은 학우들이 미래의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이것만 해내면 봉사활동 해야지’라고 마음먹을 때가 많지만 “목표를 이루기 이전에도 봉사활동은 중요하다.”고 김가현 학우는 말합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과 이웃을 위해 헌신한 이정화, 김가현 학우 등 10명의 사회봉사 우수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과학캠프 통해 '재능기부봉사'해요!

한동대와 포스텍, 포항의 한 초등학교서 과학캠프 열어

한동대학교와 포스텍 총학생회 집행부 대외협력국이 포항시 문덕초등학교에서 지식봉사활동 '대학생과 함께하는 과학캠프'를 열었습니다.

두 대학의 학부생 30여명으로 구성된 연합봉사단은 창의, 인성, 과학을 주제로 지식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초등학교 60명이 참가해 공부에 대한 학생들의 열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캠프에 참가한 김남우(11) 어린이도 이번 캠프를 꽤 즐겁게 느끼는 듯 합니다. 여름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캠프에 참가한 남우는 어떻게 참가하게 되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과학이 좋아서 참가했어요. 이번 캠프에서 이런저런 실험도 한다는데, 대학생 형 누나들 덕분에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기대 되요!"

이번 과학캠프에서 한동대 학생들은 인성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과학부분에 강한 포항공대생들의 과학시간에는 보조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면



영어와 경제활동, 서바이벌 게임 등은 직접 만들어 학생들과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남우의 눈에는 반짝반짝 흥기가 빛납니다. 학생들은 대학생 선생님들과 함께 영어연극을 선보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에 맡은 역할을 하기 위해 영어 대사를 외고 또 외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마지막에 박수 받을 때가 가장 즐거웠어요!"라며 웃는 학생들. 이미 영어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놀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번 캠프를 기획한 문덕초등학교 과학부장 최규석 선생님은 이미 이 학교가 과학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대학생들과 함께한 캠프가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아 기쁘니



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선생과 학생의 사이와는 사뭇 다른 대학생 선생님들과의 2박 3일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고 이야기하며 남우를 쓰다듬었습니다.

한동대 선생님들의 열의도 남달랐습니다. 국제지역학을 전공하고 있는 정은정 학우는 과학캠프 참가에 대해 연신 즐겁다며 싱글벙글입니다. "방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를 위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마치 많은 동생들을 알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라는 은정 학우의 눈에서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엿보였습니다.

포항공대와 한동대의 연합봉사라는 점에서도 이번 과학캠프는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포항공대 총학생회 이용문 학우는 "이번 과학캠프같은 재능기부 봉사활동에서 두 학교가 각자의 장점을 활용해 서로, 또 함께 도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동은 이제 이제 이제

“한동의 울타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한동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으로의 길’에 서서...

김영길 총장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다

올해로 개교 18년을 맞은 한동대학교에서는 특별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동대학교를 세운 김영길 총장님의 특강이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총장님이지만, 직접 총장님의 이야기를 듣기는 쉽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총장님은 특유의 웃음과 말솜씨로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번 강연회의 주제는 ‘한동으로의 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총장님이 걸어온 과거의 길, 그리고 한동을 세우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현재의 길,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동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계획인 미래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총장님은 어린 시절 꿈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총장님의 꿈은 어찌 보면 참으로 단순했습니다. 총장님은 “하늘을 멋있게 나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생각한 이 꿈이 나를 서울대를 거쳐 미 항공우주국(나사, NASA)의 최초 한국인 연구원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온 것이죠.”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총장님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애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셨다는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나

사 연구원 기도모임에 참가하면서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로 초빙되어 귀국해서, 저는 창조과학연구에만 몰두했죠. 사실 이 때, 기독교 대학에서의 초빙을 몇 번이나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총장님의 이런 마음을 뒤집어 놓은 것은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르심과 순종을 강조하신 토레이 신부님께서서는 “이 땅 한국에 진정한 기독교 대학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총장님은 이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총장님의 청산유수 같은 목소리가 잠시 잦아듭니다. 그 때의 상황을 회상하시면서 감정이 북받치셨는지 목이 메이기도 합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이사가 58장 12절 말씀을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회복이라는 길을 수축해 나가야 했던 거죠.”

총장님은 앞으로 한동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이야기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총장님은 한동의 국제화를 위해 학부제, 국제법률대학원에 이어 국제개발협력개발원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의 협약이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총장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가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는 또 하나의 명문대에서만 머무르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를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대학으로 남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은 줄 때 바뀌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은 계속 가지려고만 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법칙은 이를 이깁니다. 은혜의 법칙의 에너지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김영길 총장님의 이야기는 자리에 모인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학생들은 한동이 추구하는 가치를 향해 함께 중보하며, 또 학업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이름을 지켜나가겠다는 마음을 되새긴 귀한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딩, 하나님을 체험하라! 한동을 느껴라!

G-IMPACT 현장을 들여다보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만 갔습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잊은 채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의 길과 신앙의 길과의 괴리 속에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G-IMPACT에 참가한 한 고등학생의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기 23:10) 나의 꿈,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기를. 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름방학 특별 이벤트! 2박 3일간 한동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G-IMPACT입니다. G-IMPACT는 한동대학교 입학관리과가 주관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에게 삶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한동대학교가 어떤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지, 그 인재를 키우기 위해 어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전국 379개 고등학교, 856명이 참석했으며 1차 G-IMPACT에서 고등학교 1~2학년 대상 206



개 고등학교 425명, 2차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40개 고등학교 4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도우미로 학생들을 섬긴 60여명, 스태프 20여명 등 한동대 학생들은 한달간 G-IMPACT를 준비하면서 방학의 달콤한 휴식도 마다하며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을 섬겼습니다.

G-IMPACT는 찬양과 말씀묵상 시간, 각 전공교수님과 만남과 피치파이프·꾼들 등의 한동대 동아리 공연, 입학컨설팅 상담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여흥으로 두 번째 날 오후에는 캠퍼스를 돌며 물총싸움 등 게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5~20명씩 묶인 조는 단삼일 만에 가족이 되어 여



러 강의를 함께 듣고, 기도할 때 눈물을 같이 흘리고 목이 쉴 때까지 찬양하며 피곤한 가운데서도 서로를 다독여주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김부겸 도우미는 “2년 전 한동대 리더십 캠프에서 받았던 섬김과 봉사를 물려주기 위해, 또 그러한 마음이 미래의 후배님들을 통해 계속 물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도우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앞으로 나가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이렇게 자유롭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대학교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감동과 하나님께 감사함을 함께 느꼈습니다.”라며 캠프 소감을 전했으며, 고등학생인 전예탁 학생은 “급식을 먹기 전 식전기도를 하며 뿌

듯했습니다.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도 났고 내년에도 이 자리에 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며 G-IMPACT가 끝난 뒤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고등학생인 박현수 학생은 “강의 중에 목사님께서서 한동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신 말씀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동의 환상에 젖어서 마치 한동만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공부도 잘 되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서 저절로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 착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라며 캠프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G-IMPACT를 통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기도로 자신의 길을 준비하기를 기도합니다.

■ G-IMPACT: G-IMPACT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사업 중 하나로 고교-대학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한동대학교의 인재상, 교육이념, 학부소개, 한동문화 등을 경험하게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한동의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꿈나무를 양성하는 한동영어캠프

2009년 겨울 7회째부터 2년째 줄곧 캠프 스템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에게 한동대학교 영어캠프는 특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 꾸뻑꾸뻑 서로를 어색해 하는 아이들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선생님, 꼭 연락할게요. 감사합니다!”라며 작별이 아쉬운 듯 손을 흔드는 그 순간까지 캠프에서의 모든 기억을 한 편의 추억으로 간직합니다. 올 겨울 10회째를 맞아 ‘또 어떤 새로운 아이들이 올까?’, ‘꼭 다시 오겠다면 성민이가 겨울엔 올까? 하는 생각을 하며 또 하나의 새롭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한동영어캠프가 왜 좋았니?”라는 질문에 “그냥 있었던 시간이 다 좋아요! 꼭 다시 오고 싶어요.”라고 아이들이 답합니다. 한동영어캠프가 특별한 것은 체계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여름 한동영어캠프는 자신이 경험해 보고 공부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해 직접 체험하게 하는 ‘Global Jobs’라는 테마로 진행했습니다. “I want to be an international doctor because I want to cure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기 위해 저는 국제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기운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도 멋있었던지 중학생 지원이는 눈을 반짝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 혹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꿈을 더 크게 키우고 국제무대에 당당히 서기 위하여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모양입니다. 한동대학교가 표방하는 “Why not change the world?”(세상을 변화시키자)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동영어캠프는 세상을 변화시킬 중요한 도구가 바로 ‘영어’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신단다.” 매일 저녁, 열 명



의 아이들이 오순도순 모여 성경말씀을 나누고, 선생님의 지도아래 영어QT를 진행합니다. 평소에 궁금한 것이 많았는지 사진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아는 영어단어는 모두 사용하며 몰랐던 것들을 질문합니다. 자기 전에 해주는 짧지만 아이들의 꿈을 위한 선생님의 기도에 평소 시골벽적인 장난꾸러기들도 진지하게 자신의 비전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영어로 드렸던 어설픈 기도도 3주가 지날 때쯤이면, 선생님의 영어 기도 못지 않은 멋진 기도가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만남의 기쁨이 있으면 헤어짐의 아쉬움도 있는 법. 모든 3주 일정이 끝나고, 친동생들과 같았던 아이들이 탄 버스에 손을 흔들고 나면, 금세 가슴 한 켠에 구멍이 난 듯 허전해 집니다. 들쭉들쭉 했던 강의실과 기숙사가 조용해지니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아이들이 그리워집니다. 시간이 지나, 해가 바뀌어도 오고 가는 아이들과의 안부전화는 곧 있을 캠프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합니다. “선생님, 저 벌써 고등학생인데요, 꼭 한동대학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아이들의 꿈이 한동대학교 영어 캠프를 통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며, 오늘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날 힘찬 준비를 합니다.

한동영어캠프 김영광 팀장 

싱싱한 무, 맛있게 드셨나요?

후원자 분들을 위한 작은 보답

한동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양육 받는 땅, 하나님의 밭입니다. 후원자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한동이 더욱 기쁘지고 좋은 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중순, 작게나마 이를 보답하고자 약 1800명의 후원자분들께 한동에서 직접 기르고 재배한 무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어느덧 갈대상자 후원자가 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부족한 수확량으로 인해 이 마음을 모든 분들께 다 전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푸른 동산에서 맛있는 무가 재배되어 후원자분들께 전해질 수 있기를, 앞으로도 한동에서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들이 나와서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해 봅니다.



고양아 고양이 뭐하니?

한동인의 고양이 구출大作전

2011년 10월 6일, 학교 인트라넷에는 긴급한 구조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교 식당 앞에서 다리 저는 고양이를 보았어요! 고양이 발에 핀이 꽂혀 절뚝거린다는 제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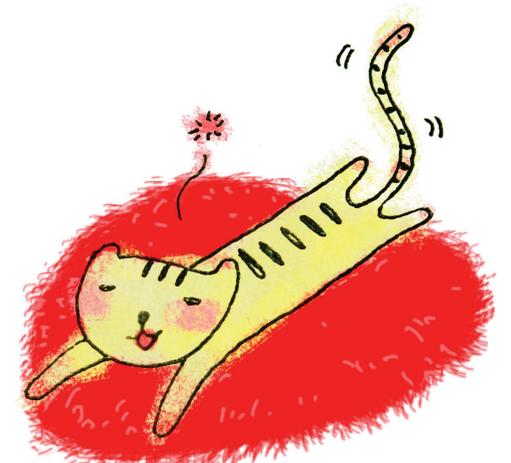
학교 주변에는 천마지라는 호수가 있는데, 낚시하러 왔던 사람들이 버려곤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조그만 발이 그만 그 낚시 바늘에 찔린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119에 구조요청을 하자, 고양이 협회에 이야기 하자 등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또 다른 의견의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19는 동물구조를 하지 않는다, 고양이 협회에서도 고양이 한 마리는 구조를 하지 않고



대신 덮은 빌려준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양이는 저대로 내버려 뒀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시판에 어느새 인트라넷에는 직접 고양이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한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 포획작전이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사비를 털어 돈을 모으고, 고양이의 위치를 제보했습니다. ‘맘스식당 앞에서 보았어요!’ ‘야외공연장에서 보았어요!’ ‘가까이 가도 도망도 안가고 많이 아픈가 봐요...’

계속해서 수많은 제보의 댓글 아닌, ‘관심’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나도록 고양이는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보를 받고 달려가 보아도 고양이는 힘에 겨워 절뚝거리면서도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을 피해 황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양이와의 쫓고 쫓기는 슬래잡기가 계속되던 10월 26일 밤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제보가 왔습니다. 야외공연장에서 고양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보를 받고 달려간 야외 공연장에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기운 없는 모습의 고양이가 도망도 가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했는지 유인용 고기를 몇 점 먹더니 몇 안의 고기를 덥석 물었습니다.

철컹.

20일간의 추적전 끝에 드디어 고양이가 잡혔습니다!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 나왔습니다. 고양이는 우리의 마음은 이는지 모르는지 두려움에 야옹야옹 울어댈 뿐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준 한동천사들 덕분에 고양이는 잘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병원 선생님께서는 상처를 소독하고 깊이 박혀있던 낚시바늘을 잘라 꺼내셨습니다.

드디어 고양이의 그 조그만 발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양이는 상처가 아물어 집이 있는 다시 한동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요? 최근,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사료를 먹으며 배 따지게 누워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고양이 팔자도 상팔자인가 봅니다. 회복될 때까지는 이런 편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지요.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 올해 겨울도 한동은 따뜻할 것 같습니다.

박나영(경영경제 08)

■ 이 글은 경영경제학부 프로젝트 관리론 수업에서 만든 '한동스토리북'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동스토리북'은 한동만의 정신과 문화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한 가을 소풍

김대옥 목사님 놀이터 방문기

5주차 토요일 오전, 언니오빠들과 함께 김대옥 목사님 댁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다. 한동대에서 출발해서 기계면으로 가는 길 풍경엔 가을이 가득 담겼고, 도로 양 옆에는 코스모스가 즐지어 피어 있었다. 진분홍 코스모스가 가장 희귀하고 예쁘다던 목사님께서 꽃이 일찍 질까봐 걱정했는데 예쁘게 피있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되어서 다행이라 하셨다. 목사님의 말씀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시는 마음이 전해졌다. 지나가는 풍경들 하나하나 목사님께서 설명해주셔서 그냥 지나쳐 갔던 것들을 새롭게 보이는 듯 했다. 가는 도중 덕동마을에 들렸는데, 이 마을은 이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마을지도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했다. 덕동마을 사람들은 옆 집의 젓가락개수까지 알고 있을 것만 같았다. 이 마을엔 2006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된 오덕리 마을 숲이 있었는데 내 할아버지뻘 되는 커다란 나무들과 개구리밥으로 덮인 연못이 매우 운치 있었다.

30여분의 즐거운 여행 끝에 목사님 댁에 도착했다. 알고 보니 우리가 간 곳은 목사님 댁이 아니라 목사님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목사님 내의

분께서 가지, 배추를 기르시는 텃밭이 있고, 낮은 언덕을 올라가면 컨테이너 박스로 된 작은 집이 있었다. 우리들은 역할 분담을 하여 차에 싣고 온 음식들을 나르고, 컨테이너에서 의자를 꺼내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울 준비를 했다. 음식 앞에서 우리들은 일을 일사천리로 끝마쳤다. 그리고는 얼른 저녁식사에 들어갔다. 사모님께서 준비해주신 오이 장아찌가 너무 맛있어서 밥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오이 장아찌만 먹은 것 같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고기는 한동대에 와서 먹어본 중 최고의 맛이었다. 고기와 함께 소시지를 구워 먹고, 후식으로 케익과 커피에다 사과 한 조각을 곁들여 마무리 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한자리에 둘러앉아 년센스 퀴즈를 내고 맞추며 시간을 보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년센스 퀴즈를 너무 잘 맞추셔서 다들 놀랐다. 나는 년센스 문제를 푸는 데에는 감각이 없기도 하고, 줄음이 술술 와서 살짝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기숙사에 있었다면 자칫 늘어지기 쉬운 토요일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다며 행복해하던 기억이 난다.

이후에는 목사님이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신 농촌

체험 프로그램으로 배추벌레 잡기를 했다. 희망자에 한하여 준비물인 목장갑과 젓가락을 챙겨서 밭으로 내려갔다. 배추벌레는 배춧잎 뒤에 꼭꼭 숨어있어서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웠다.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한참을 헤맨 끝에 배추벌레를 잡아 발로 꼭 밟아 작별인사를 시켰다. 배추벌레를 몇 마리 잡다 보니 어느덧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목사님께서 “더 시간이 있다면 밤까지 놀다가 함께 별을 봐도 좋을 텐데.”라며 아쉬워하셨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와 추억을 선물해주셨다. 몰랐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일상의 여유를 회복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 사람은 기대한 것 이상을 받았을 때 감동하게 된다는데, 이 날의 상황이 딱 그랬다. 순장들이 편안하게 쉬 수 있도록 섬겨주시고 당신의 하루를 내어주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하다.

유승주(국제어문 10)



후원안내

갈대상자

한동대학교는 갈대상자와 같습니다. 갈대상자에 담겨졌던 모세가 훗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민족의 구원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출2:3) 한동대는 하나님의 대학으로서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를 양성하는 갈대상자이고자 합니다. 이는 한동대학교에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꿈, 그가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의 갈대 한 올 한 올처럼 기도와 후원의 한 손길 한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505-09441-00104, 국민은행 640-01-0001-877

팀워크(교육 선교 프로그램)

• TimWork(팀워크) : Tim은 Timothy(디모데)의 줄임말로 '디모데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한동에서는 세계 60여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공부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한동에서 다른 학생들과 더불어 생활하며, 지식과 정직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졸업 후 본국에 돌아갈 이들은 그곳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님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이끌어준 바울과 같이 개발도상국과 미전도지역에 파송될 청년 리더의 양육을 위한 바울이 필요합니다.

▪ 한동대학교 팀워크 : 하나은행 518-910023-11205, 국민은행 848237-97-100016

보아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으로 타향살이를 하게 되고, 흑심한 흉년으로 굶주리던 롯 앞에 곡식자루가 쏟아졌습니다. 그녀 앞에 선 보아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비 하셨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동대학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보아스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과 함께 하는 한동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아스를 부르고 계십니다.

▪ 한동대학교 보아스 : 하나은행 518-810133-24005, 국민은행 640-01-0052-426

건축기금

한동은 세계 각국에서 차세대 지도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닦기 원하는 청년들이 꿈을 품는 곳이자 양육되는 또 하나의 작은 세상, 글로벌 타운(Global Town)입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은 글로벌 리더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한동의 글로벌 타운은 지금 이 순간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솔로몬을 통해 방주와 예루살렘 성전을 예비하셨듯이 후원자님의 지원과 격려를 통해 한동에 글로벌 타운이 완성될 것입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함께 한동의 청년들이 자라나길 희망합니다.

▪ 한동대학교 건축기금 : 하나은행 518-910023-12905, 국민은행 640437-04-000024

한동 첫 열매(첫월급)

첫 열매는 사회의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의 첫 월급 기부를 의미합니다. 한동에서 첫 열매는 첫 씨앗이 되어 더 풍성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정직하고 유능한 하나님의 인재들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따과 헌신, 첫 열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길 원하시는 여러분의 첫 걸음입니다.
첫 열매 속에 담겨진 순결한 헌신, 최상의 사랑
첫 열매를 통한 나눔을 당신이 실천 해 주십시오.

▪ 한동대학교 발전기금(기타지정기부)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지정기부

한동대 발전기금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일임하는 일반발전기금과 사용용도를 지정한 지정발전기금으로 구분됩니다. 지정발전기금은 기부자가 직접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한동대학교 발전기금(기타지정기부)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후원가입 · 정보변경 · 종료안내

1.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를 통한 신청
2. 직접 신청은 한동대 발전협력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과 세금

한동대학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소득의 100%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 가능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에서 발급 가능

한동대학교 발전협력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전화 : 054-260-1063~4
팩스 : 054-260-1069
E-mail : sarang@handong.edu
<http://sarang.handong.edu>

미국 LAHIF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Cornerstone Church 내 위치) 24428 South Vermont Avenue, Harbor City, CA 90710 USA
전화 : 310-530-4040 | 팩스 : 310-530-8400
E-mail : lahandong@hotmail.com

후원자님의 주소가 변경되셨을 경우 미리 알려주시면 반송 우편료가 절약되어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사업에 더욱 소중히 쓰여질 것입니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 | | | | | | |
|-----|-----|-----|-----|------|-----|-------------------|
| 강나겸 | 김소희 | 류경련 | 오현성 | 이인범 | 정대진 | 황신 |
| 강동춘 | 김숙환 | 민상기 | 원명구 | 이정금 | 정미자 | 황영수 |
| 강동현 | 김순원 | 박국종 | 원영희 | 이정미 | 정원재 | 황윤성 |
| 강시온 | 김신향 | 박미란 | 유경춘 | 이지영 | 정주는 | 황은주 |
| 강신희 | 김영길 | 박병선 | 유미정 | 이지은 | 정지영 | 황하수 |
| 강혜덕 | 김영신 | 박소미 | 유현상 | 이하영 | 조우경 | Edward A. Purenel |
| 강혜정 | 김영주 | 박영채 | 유희영 | 이행진 | 지정구 | 김훈복지재단 |
| 고석일 | 김영진 | 박용택 | 육솔 | 이현구 | 진윤섭 | (유)하이코스 |
| 공석종 | 김영철 | 박윤아 | 윤이나 | 이현주 | 차한나 | (재)태성장학회 |
| 권지연 | 김왕수 | 박은혜 | 윤태홍 | 이형구 | 최명자 | (주)테두코 |
| 권지은 | 김용욱 | 박지연 | 윤해정 | 이형준 | 최복숙 | 미션앰컴 |
| 기세충 | 김원호 | 박찬열 | 윤혜선 | 이희필 | 최수원 | 오블레싱 |
| 길민수 | 김유겸 | 박창열 | 이경우 | 임상민 | 최아름 | 하오트솔루션 |
| 김광성 | 김윤덕 | 박천기 | 이계영 | 임새미 | 최애리 | 한비테크 |
| 김기세 | 김윤섭 | 박현철 | 이기형 | 임연숙 | 최영훈 | 포항바다교회 |
| 김다윗 | 김윤숙 | 백연경 | 이길라 | 임이주 | 최영훈 | 포항제일교회 |
| 김도형 | 김은영 | 백의성 | 이동근 | 임태형 | 최용준 | 포항중앙로타리클럽 |
| 김명녀 | 김재웅 | 송석훈 | 이문상 | 임한준 | 최재훈 | |
| 김미숙 | 김정숙 | 송수연 | 이문희 | 임혜경 | 최준영 | 무명 및 익명자 58명 |
| 김미향 | 김종선 | 송수정 | 이민재 | 장세환 | 최진경 | 오병이어 370명 |
| 김부목 | 김주안 | 송원태 | 이범 | 장재형 | 최찬해 | |
| 김상규 | 김주홍 | 송인호 | 이상일 | 장준수 | 최환 | |
| 김상근 | 김지혜 | 신동은 | 이선영 | 장초희 | 하나은 | |
| 김상기 | 김철영 | 신봉철 | 이성해 | 장혜수 | 한덕규 | |
| 김상범 | 김하나 | 신호수 | 이승민 | 장훈 | 한상욱 | |
| 김상현 | 김한구 | 심승현 | 이시연 | 장희수 | 한안나 | |
| 김성균 | 김현태 | 안선영 | 이신화 | 전경원 | 한영광 | |
| 김성애 | 나혜영 | 양다영 | 이용현 | 전민숙 | 한영일 | |
| 김성웅 | 남석우 | 양오석 | 이은숙 | 전옥순 | 한예슬 | |
| 김소미 | 노종춘 | 엄용숙 | 이은신 | 정경혜 | 형대조 | |
| 김소영 | 류강렬 | 오세훈 | 이은우 | 정다니엘 | 홍성형 | |

“한 청년의 하나님과의 순수한 동행,
글 속에서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린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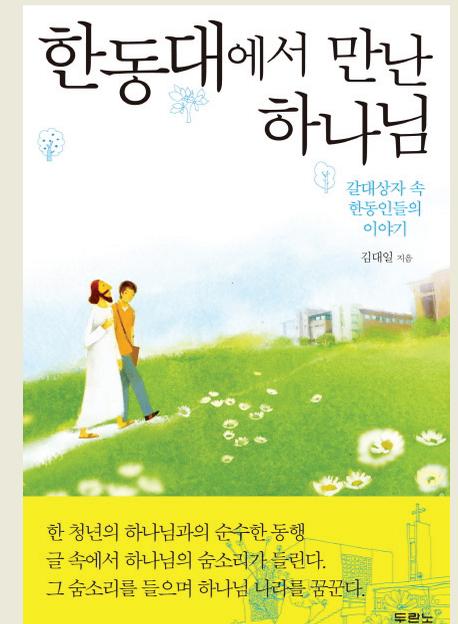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일 상에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자고 호흡하는 것이다. 저자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다. 비록 한 학기 동안 한동대 학생으로 있었지만, 4년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다닌 사람처럼 한동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주 자그마한 사건도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 사건을 묵상하고 소화하려 노력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며, 저자가 만난 한동대의 하나님 이야기이다.

한동대 이야기하면 김영애 사모님이 쓴 《갈대상자》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베스트셀러라 불릴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선사한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갈대상자》가 이미 한동대학교의 감동과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총장님과 사모님, 교수님들이 모르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우리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한동 안에

서 직접 체험한 학생들의 작은 헌신과 믿음의 도전은 너무나도 색다르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시는 대학의 학생들은 갈대상자 안에 담긴 민족의 소망과 같았다.”

이 책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청소년,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줄 것이다.



한 청년의 하나님과의 순수한 동행
글 속에서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린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갈대상자에 전해요

- 김O경 우리아이들 그 먼곳까지 보내놓고 마음같이사는 많은 후원하고 싶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 정O우 정O(아버지)입니다. 우리아이(정O우)가 현재 5살인데 꼭 한동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김O비 고등학교 1학년 김O비입니다.초등학교 4학년때 가족과 함께 한동대학교를 방문하면서 아빠로부터 한동 역사를 들으며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작은 돈이지만 용돈을 모아 한동대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Why not change the word? ^^~화이팅입니다
- 경O이 갈대상자 책을 통하여 큰 은혜받고 조그마한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창고등학교 출신으로 모교에 대한 긍지를 갖고 사는 저처럼, 한동대인들은 더 큰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 지켜보며 기도하겠습니다.
- 최O경 이번 2011년에 저희 큰오빠(최O성)가 한동대에 입학했는데, 지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이 학교에 꼭 들어올게요!!!!
- 김O연 하나님의 나라가 한동인의 가슴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 김O희 김영길총장님의 간증테이프를 얼마전에 들었는데 한동대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대학입에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주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 김O균 하나님에 기뻐하는 대학교가 되길 기원합니다.
- 황O주 갈대상자 책을 친구소개로 이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며 무한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고 아주 작지만 마음으로 보태고 싶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한동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
- 진O섭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신앙으로 무장된 이나라의 일꾼들이 한동대를 통하여 들불처럼 일어나 이나라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도록 잘 교육 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 강O현 11학년 강O주 학부모입니다. 귀한 일에 적은 금액이지만 동참하게 되서 감사하며...
- 전O숙 아직은 어린초등자녀이지만 미래의 학부모로 마음의 준비를하며 기도와 후원으로 재정이 항상 풍족하게 공급되길 기도하겠습니다.
- 박O미 7/1~7/5일에 치르는 기말고사에 있어서 저를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아니하고, 영광돌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요~^^
- 조O경 하나님을 바로이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 김O나 한동은 신앙이 성숙하기에 정말 좋은 토양입니다. 후배들도 부디 그 좋은 땅에서 말씀으로 열심히 일구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 이O영 10개의 갈대가 한동이 세상이라는 물위에 띄어졌을때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안전하게 하나님의 학교 한동을 지켜주길 소망합니다^^
- 김O향 한동대가 하나님의 대학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 나O영 광주월광드림스쿨 대전사시학교,한동대학교, 저는 이제 하나님의 학교 셋을 알았으니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의 한달에 한동을 33만원씩 보낼수 있게 믿음을 주세요. 갈대상자를 읽고 푹탄맛은 가슴으로 열결에... 식기전에...불뚝니다. 할렘루어!
- 한O슬 한동대에 가려고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용돈을 아껴서 보냅니다. 제가 한동대에 갈때쯤이면 지금 보다 더멋진 학교가 되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 원O희 갈대상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많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한동대와 김영길 총장님과 김영애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O준 저희아이가 초등4학년 이O준 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길 원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한동대학교에 들어가서 흥이 할수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기도해주세요...
- 한O옥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 한동을 사랑합니다.
- 이O영 <갈대상자>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한동대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한동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 오블O상 하나님이 주인되신 한동대학이 복음의 통로가 되길 중보합니다.
- 고O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기독교 대학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되시길 기도합니다.
- 강O정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모든 한동인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사회에 내놓는 한동대의 비전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한동대에 항상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할 따름입니다.

*갈대상자에 전해오는 갈대상자 연서를 보내주신 후원자님들의 메세지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갈대 엮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꿈과 비전을 품고 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때로,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서는 많은 후원자들을 통해 갈대상자를 엮으셨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기도와 따뜻한 손길을 통해
황량했던 캠퍼스가 초록빛으로 채워져 갔고
하나님의 인재들이 양육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믿음의 갈대 한 올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청년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sarang.handong.edu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한동은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